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5. 12. 8 (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한달 만에 0.43%p 뛰었다…대출금리 상승에 영끌족 '비상'

데일리안 https://zrr.kr/izGPTT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4.120~6.200% 수준으로, 지난달 28일과 비교해 일주일 만에 하단이 0.100%p, 상단이 0.028%p 높아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시장금리 상승 여파로 은행권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확대

전용창구 공사나선 은행…ELS 판매재개 준비

매일경제 https://zrr.kr/mHxbK1

시중은행들이 내년 초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재개에 대비해 거점 점포에 '고위험 상품 전용 상담실'을 설치하는 작업에 착수
현재 전용 상담실을 설치하는 점포는 5대 은행 통틀어 수백 곳이 될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5대 은행 점포가 3900개인 걸 감안하면 ELS 판매 가능 공간이 대폭 줄어드는 것

150조 국민성장펀드 전략좇…박현주·서정진 수장 맡는다

매일경제 https://zrr.kr/cuhKwf

총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방향을 잡을 전략위원회 사령탑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내정
기업을 이끌고 있는 두 사람을 위원회 사령탑에 선임한 건 국민성장펀드를 민간 성장의 종잣돈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

생산·포용금융 동시에?…은행들 딜레마

머니투데이 https://zrr.kr/i2DWBg

정부가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을 동시에 확대하라고 주문하면서 은행권 여신심사 부서가 딜레마에 빠져
혁신·전략산업을 우선 지원하라는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취약 자영업자를 외면할 수 없다는 부담이 동시에 다가오기 때문

IMA '1호 상품' 연내 나올까…과세·수익지급 구조 등 막판조율

연합뉴스 https://zrr.kr/pNnKiJ

빠르면 이달 초로 예상됐던 종합금융투자계좌(IMA) '1호 상품' 출시가 늦어지면서 연내 판매가 가능할지가 관심
IMA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과세 기준과 지급 구조가 확정돼야 하고,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관련 막바지 검토도 진행 중

임기만료 도래하는 증권사 CEO들…키워드는 '내부통제'와 '세대교체'

세계일보 https://zrr.kr/stBThq

올해 주요 증권사들이 양호한 영업실적을 기록했음에도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기조가 맞물리며 연말 최고경영자(CEO) 인사 셈법이 복잡해진 모습
실적 개선을 이끈 대표이사라도 금융사고나 지주사의 세대교체 방침 등 비재무적 요인에 따라 거취가 갈릴 수 있다는 전망

운전자보험 변호사비 보장 축소… 절반은 소비자 부담

디지털타임스 https://zrr.kr/VDupMj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보장이 대폭 축소… 교통사고로 변호사 선임 시 발생하는 비용의 절반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그동안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가 많았던 만큼 이를 막는 효과를 기대

"같은 독감인데 치료비는 9배"…과잉진료에 구멍 난 실손보험

서울경제 https://zrr.kr/QIPcSt

독감이 유행하면서 올 들어 비급여 주사제 처방에 따른 실손 보험 지급액이 3배 넘게 폭증
일부 병원들이 환자에게 먹는 약보다 최고 9배나 비싼 고가의 수액 주사 처방을 권하고 있기 때문… 업계에서는 과잉 진료에 실손 보험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

초국경간 '가상자산 의심거래' 단속 강화… 금융당국 "범죄 의심 계좌도 정지"

디지털데일리 https://zrr.kr/Ae3y5V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업계로부터 초국경 범죄와 관련된 계좌 정보 및 거래 정보가 담긴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받고,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등 자금세탁방지 규제도 크게 강화
FIU는 의심거래보고서가 접수되면 분석을 거쳐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자금 몰수 등에 활용될 수 있게 조치할 방침

美CFTC, 현물 암호화폐 선물거래소서 거래 허용

뉴시스 https://zrr.kr/tC4UYX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선물거래소에서 현물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
미국 파생상품 거래소인 비트노미얼(Bitnomial)은 레버리지(차입금)를 적용한 현물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할 예정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